

구술 기록의 공공성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Oral Records :
The Cases of 2021 Digital Life History Archiving

김택호(Kim, Teakho)*

1. 머리말
2. 공론장과 공공성
3. 구술 기록이라는 공론장
4.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공공성
5. 맺는말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taekhomj@hanmail.net).

■ 투고일: 2023년 12월 31일 ■ 최종심사일: 2024년 01월 09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1월 21일.

■ 기록학연구 79, 443-469,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79.443>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술 기록과 구술 기록 생산과정에 공론장 형성 기능이 있으며, 이것이 구술 기록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공론장과 공공성을 논의하고 분석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서 공론장의 기능과 공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것이 구술 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이 수행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 응답자들의 구술 기획과 구술 기록, 구술 기록 해설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주제어 : 구술 기록, 공론장, 공공성, 공적 행복,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Abstract〉

What kind of publicness is there in oral records? This ques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prepared three questions again. First, what is the public sphere and what is publicness?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oral records and other records? Third, has there been a case where oral records created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sphere and publicity to achieve the purpose. Prior studies in philosophy, sociology, and politics were referen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role of the public sphere is to provide citizens with freedom of speech. Second, oral records can record alienated information and facts and enable interact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is was the publicness of oral

records. This study proved this conclusion by analyzing the commentary by life history archivists who worked in the 2021 Digital Life History Archiving project.

Keywords : oral records, public sphere, publicness, Public Happiness, Digital Life History Archiving in 2021

1. 머리말

법적으로 공공 기록과 민간 기록을 구별하는 기준은 있지만, 사실 그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뭔가 기록을 남기는 일에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 사회적 의미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공공이라는 개념도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가기관이 생산·보존·관리하는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하는 단순한 접근방식은 기록물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박태선, 2023, 58)¹⁾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술 기록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묻는 목소리를 자주 들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1) 최근 발표한 이 연구는 한국 기록보존소(Archives)의 공공성 왜곡과 부재 현상을 비판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셋을 지목한다. 첫째 국내 기록보존소가 국가와 관계하는 공적(Official)인 의미에 치우친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 둘째 공(公)과 사(私) 이분법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셋째 기록보존소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중립성 문제에 관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실제 기록보존소(Archives)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은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 행위가 완전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카이브즈에 모인 기록을 관리할 때 이미 정치에 의해 결정된 법제와 정책에 충실한 집행으로써 기계론적인 관료주의 관점에서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물음에는 공공기록물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구술 기록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록에 대해서도 기록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과 방안은 없어 보인다. 아직 기록물의 객관성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기록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그것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객관성이 공공기록물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 자체는 아니다. 공공기관이 기록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구술 기록 자체, 그리고 구술 기록 생산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기록물이 지니고 있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일지 가늠해 보는 일은 흥미로울 수 있다. 구술 기록이 대체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기록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구술 기록 생산과정과 구술 기록 자체가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곧 구술 기록의 공공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볼 예정이다.

첫째, 공론장과 공공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공론장을 통해서 공공성에도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이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같은 철학자,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 등은 현대 사회의 공론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그들이 상정하는 공론장과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그들의 이론에서 시사점을 찾는 내용이 될 것이다.

둘째, 구술 기록의 특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구술 기록 생산과정을 분석하면서 구술이라는 이 규격화된 대화방식이 다른 기록이 담지 못하는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떤 점에서 공론장 역할을 하는지, 구술 기록이 만드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려고 한다.

셋째,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필자는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생활사기록가라는 이름으로 구술 기록을 생산한 시민 면담자들이 쓴 해설이었다. 구술 면담자들의 솔직한 내면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수집된 일은 그 이전에는 없었다. 이들의 해설과 또 관련 구술 기록을 소개하면서 구술 기록의 공론장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공론장과 공공성

공론장(public sphere)은 공공성(publicness)을 추구하는 공적 영역이다. 의사소통 공간인 공론장은 근대 시민 사회 형성 이후 참정권이 확대되고, 여론이 정치·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론장이 실제 공공성을 확보하고, 추구하는 공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상존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이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장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주체는 국가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대표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는 공공성을 추구할 법적 정당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행정적·재정적 능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과연 국가가 이 본질적인 공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적인 분석이 제기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 추구의 주체를 이해하는 관점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아렌트, 하버마스, 세넷 같은 학자들은 국가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공적 의사소통 영역인 공론장이 축소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판단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렌트는 국가가 공공성 담론과 이를 실천하는 권위와 도구를 독점한 상황을 전체주의라고 명명했고,(Arendt, 1951; 이삼성, 2015)²⁾ 하버마스는 유럽 사회 공론장의 기원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체주의와 대중매체의 발전이 20세기 이후 시민 사회의 능동성을 훼손했다고 분석했다.(Habermas, 1991)³⁾ 21세기 학자인 리처드 세넷은 현대 미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고, 공적 영역도 사적 영역화되었다고 분석했다.⁴⁾ 그는 이와 같

2) 아렌트가 규정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그녀는 공포(total terror)와 이데올로기를 전체주의 판별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데올로기를 국가구성원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 공포 상태를 일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상황을 아렌트는 총체적 지배(total domination)라고 명명했다. 이는 나치독일과 같은 특정한 정부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일테면 자신이 살고 있던 냉전 시대 미국에도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생각이었다.

3) 하버마스가 공론장 문제에 연구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가 합리적 이성인 내재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확보되었던 공론장(polis)은 중세 유럽에서 사라졌다. 중세 왕족과 귀족이 추구하던 공공성은 과시적 공공성(representative publicness)이었다. 부르주아 공론장이었던 17~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와 프랑스의 살롱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지만, 정치적 공론장이기도 했다. 커피하우스에 드나들던 부르주아들은 현장에서의 토론과 대화 외에도 뉴스를 전하는 편지, 손으로 쓴 신문 등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토론과 발행물들이 제한적인 범위에서였지만 여론(interaction)을 조성했다. 부르주아는 공론장이었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활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환경을 만들어 냈다. 점차 공론장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공론장의 논의 주제가 문화에서 정치로 이동했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공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시민혁명과 대의민주주의가 다 이와 같은 근대 공론장을 매개로 실현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세기 들어 공론장이 그 기능을 상실한 이유로 정치적 전체주의와 함께 대중매체의 발전을 꼽았다.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공론을 확인할 뿐 직접 공론장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 '대중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나 '무비판적인 대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은 현상의 원인이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유연한 자본주의(flexible capitalism)라고 명명한 이 체제는 장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단기 이익에 매몰된 체제를 말한다. 유연한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늘 불확실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불확실성은 사회구성원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세넷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성 파괴(corrosion of character)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론장이 사회자본과 경제자본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단, 계층에 의해 사유화되었으며, 이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Sennett, 1998)

분석 대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렌트, 하버마스, 세넷은 모두 공론장 축소 원인으로 국가기구와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지목하고 있다. 공공성을 추구할 의사가 없는 국가기관과 그들이 주도하는 국가체제와 사회환경이 공론장의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본분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확산하면서 ‘공공성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국내 연구(김희강, 2010, 5-6)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이와 같은 진단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주체인 개별 시민과 시민 사회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연결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시민 사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성

4) 시민 사회가 사적 영역에 매몰되면서 공적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분석은 아렌트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사생활 속에서 은거하고 가정과 출세 문제에만 오로지 헌신하는 태도는 사적 이해관계가 제일이라고 믿는 부르주아 계급의 타락한 산물이다. 속물은 자기 계급으로부터 고립된 부르주아이고, 부르주아 계급 자체의 와해로 인해 산출된 원자화된 개인들이다. …(중략)… 대중은 자신의 세계가 허물어지는 와중에 가장 먼저 자신의 사적 안전을 걱정하던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조그만 자극에도 모든 것—신념, 명예와 존엄성—을 희생할 작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Arendt, 1951, 66-67)

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시민 개개인과 시민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⁵⁾ 국가권력을 획득한 사람이나 집단, 특정 계층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행정력과 국가 자원을 사유화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 사회가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개별 시민과 시민 사회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판단은 정당하다.

공공성의 목적인 공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관점에도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근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공익과 공적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행복의 총량을 뜻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가치를 이처럼 단순한 접근으로 이해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 아렌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공동체의 행복은 구성원 행복의 총합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렌트는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이 각기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공적 영역⁶⁾과 사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판단을 전제하는 이 관점은 공적 영역 활성화가 공적 행복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박성우, 2005; 김선욱, 2009; 홍원표, 2011; 조승래, 2014; 이재점, 2015; 홍경자, 2016; 정원규, 2020) 그녀에 따르면 공적 영역은 개인 간의 소통과 충돌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 공적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영역을 ‘사이(in-between)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이 공간은 복수성(plurality), 곧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다수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 공공성은 이처럼 다수 사람 ‘사이’를 채우는 다양한 가치가 경쟁·토론·조율되면서 형성된다.(주명

5) 현대 사회에서 공공성 추구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그 근거를 논증하는 국내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이승훈, 2008; 조대엽, 2012)

6) 아렌트는 공론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공적 영역은 공론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진·박일호 2012) 만약 이 ‘사이’ 공간이 소멸한다면 획일화된 사회, 사적 영역의 침범으로 인해 공적 행위가 사라진 사회가 될 것이다.⁷⁾ 아렌트에게 ‘사이’ 공간의 활성화는 공적 영역의 활성화이고, 공공성 추구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 공적 영역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공적 영역에서 개별 구성원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김세훈·정기은, 2020) 이를 전제로 아렌트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이해에 접근하는 것이 공적 행복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아렌트의 관점은 국가사회와 공동체 내에 소외 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간에 부여되는 상호책임성을 공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공익관과 같은 입장이다.(소병선, 2017, 274-275) 이 상호책임성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소통이 핵심 기능인 공론장의 활성화가 공익 추구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은 공론장의 상실, 상호이해와 상호책임성 상실에서 비롯된다. 아렌트와 하버마스가 공론장 와해 원인으로 생각했던 전체주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에서도 공론장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혐오 표현과 냉소적인 태도로 공적 생활과의 관계를 끊는 경우가 적잖다.⁸⁾

적대감이 누적된(ressentiment) 의사 표현이 심사숙고 없이 공론장에

7)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공동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결합하지만, 서로 공격하고 덤벼들지 못하게”하는 곳으로 정의했다.(Arendt, 1951, 135)

8) “신자유주의 시대에 몰락하는 중산층들은 모험을 택하기보다 계속 움츠러들 뿐이다. 미국인의 삶은 차이가 불평등으로 전환되면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표현에 치중했고, 프랑스인들은 각자의 사적인 일에만 몰두해 공적 생활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는 아동기 때부터 서로를 적으로 취급했으며, 강요된 불평등은 사람들의 내면에 강박을 만들어 내고 쫓기는 인간(driven man)을 양산했다.”(유승호, 2015, 125)

던져지거나, 공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의 취향과 내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론장을 불신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공론장이어야 할 정치 공간을 냉소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는 소통 공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소통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곧 공론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SNS까지 소통 플랫폼은 여기저기 열려있지만, 그곳이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는지, 갈등 플랫폼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자폐적 집단 내 공간으로 기능하는지 딱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한국 사회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공론장 약화 현상은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상호이해와 합의가 가능한 공론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적잖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회의체, 국회를 비롯한 대의기관, 언론 등은 공론장 기능을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유사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유사 공론장이 참여자들의 대등성을 기초로 비판적 이성이 작동하는 유효한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적 문제에 대해 냉소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공론장은 주변화되고 차별받았던 사회구성원(집단)의 관점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고, 그러한 목소리가 보호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를 올바른 공론장으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정과 그 결과는 공공성을 확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구술 기록이라는 공론장

구술면담 현장만 재현해 봐도 구술 기록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기록이라고 쉽게 말하기 힘든 점이 많다. 구술 기록은 구술자에게만 귀속

되지 않는다. 구술 기록 생산 현장에는 엄연히 1차 소통 상대인 면담자가 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구술 채록 현장이라면 1~2명의 촬영자, 주관 기관 측 담당자, 나아가 현장에는 없지만 언젠가 그 기록을 열람하게 될 미지의 누군가도 구술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작용한다. 사실 구술과정에서 가장 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면담자이다. 그는 구술 내용을 설계하고, 본인이 구술자에게 듣고 싶은 정보를 정한다. 그 과정에서 구술자와 협의하거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도 있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과정도 있다. 구술자 입장에서 면담자는 자신이 남기는 구술 기록의 최초 열람자이고, 설득 대상이다. 우선 면담자를 설득해야 자신이 남기는 기록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 차원에서 구술 기록의 공공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구술 기획이다. 구술 기록은 구술자가 주인공이지만, 면담자의 기획과 연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술 기록 생산을 의뢰하는 주관 기관도 넓은 의미에서 면담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면담자이다. 그런 점에서 구술 주제와 구술자를 선택하는 면담자의 판단과 결정에 구술 기록 생산 의의가 상당히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구술 기록을 생산하는 경우, 기관의 특성이 구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을 위해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구술 연구 사업이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 채록 사업은 학술적 의의에 초점을 둔 사업인데⁹⁾,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기록보존소, 대통령기록관, 헌법재판소, 법원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등이 다 각기 해당 기관이 설정한 특수한 목적

9)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사구술자료관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는 구술 기록의 주제는 “한국현대정당정치사”, “한국”, “현대경제외교사”, “민주화와 종교”, “한국 현대사와 군”,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 “국가폭력”,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등이다. 구술 대상자의 활동 분야와 계층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을 위해 구술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¹⁰⁾

생산 주체가 다르다고 해도 주관 기관을 포함한 면담자들이 구술 기록을 통해 얻으려는 정보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이면사,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하는 것이다. 엘리트 대상 구술 기록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배면과 배경을 드러내는 것을 구술 기록 생산 사업은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구술 기록이 다루는 문제는 개인사이면서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이다. 엘리트 구술자들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시대가 부여했던 공적 책무를 설명한다. 간혹 후회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들의 회고와 감상은 공적인 문제를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이는 배면에 있는 야사가 아니라, 드러난 사실의 원인과 배경이다. 하위주체 대상 구술도 마찬가지이다. 하위주체 대상 구술에서도 면담자와 구술자가 드러내려는 점은 하위주체의 경험과 인식이 지닌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중요성이다. 누구라도 무명의 행위자였던 구술자들이 겪었고, 느꼈던 일들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록이라고 폄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배제된 정보, 혹은 중요시되지 않았던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주변화되고 차별받았던 사회구성원(집단)의 관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이런 행위에는 공론장 기능이 있다.

대화라는 형식 역시 구술 기록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쉬운 요소이다. 생애사 구술일 경우, 면담자는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적잖이 확보한 상태에서 면담을 시작한다. 면담자는 구술자를 만나기 위해 꽤 노력했을 것이다. 구술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을 물색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했을 것이다. 이를 정리했고,

10) 구술 기록의 활용 목표에 따라 구술 기록의 내용이 결정되기도 한다. 구술 기록을 전시할 것인가, 대중매체에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출판과 연계하여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생산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구술 기록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참고 정보를 수집해서 구술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질문지를 마련해서 구술자와 공유하고, 때로는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질문 내용 일부가 조정되었을 것이다. 그 질문지가 구술이라는 대화의 지도가 된다.

그러나 면담자가 아무리 많이 노력했다고 해도, 구술자보다 그의 생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구술은 의사와 환자의 대화, 방송 인터뷰에서 초청받은 사람과 사회자, 교사와 학생, 혹은 학부모 사이의 대화와 유사하다.(유여란, 2018)¹¹⁾ 이들 대화 상황처럼 구술면담 과정에서도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는 지식과 경험의 양과 질에서 비대칭성(epistemological asymmetry)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김규현, 2014, 311-312) 구술면담 진행 과정은 이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과정이다. 결국 면담자와 구술자의 정보와 이해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된다면, 성공한 구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구술 기록 생산과정이 구술자와 면담자 각각의 인식에, 나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 변화 가능성은 구술 기록 생산의 부차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이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정보 공유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공감이다.¹²⁾

구술자들과 면담자의 견해가 일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대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면담자는 추가적인 설명과 이유를 묻는다. 이런 특성이 구술 기록이 소규모

11) 이와 같은 대화를 '제도담화(institutional talk)'라고 부른다. 대체로 이러한 대화에서는 참여자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무와 역할 등이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도담화 사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장과 반론, 질문과 답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대화, 인터뷰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12) 공감은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된 개념이다. 상대방 입장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뜻하는 인지적 공감과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능력을 일컫는 정서적 공감 등과 같은 개념이 근래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 소재가 되는 일이 적잖은데, 이러한 흐름이 곧 공감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이다.¹³⁾

구술 기록에는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구술 기록은 적절한 관리와 열람 서비스 등을 통해서 해당 기관과 시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은 해당 기관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구체적인 사건의 실체와 맥락을 상대적으로 쉬운 구어체 기록으로 생산 관리, 서비스하고 있다. 구술 기록의 이러한 특성을 시민 사회 공론장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의 대화, 젠더 간의 대화, 직업 간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기록을 생산하고 공론장을 활성화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은 이와 같은 모색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공공성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¹⁴⁾은 경력과 연령이 다양한 시민 지원자 130명을 선발해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 후, 생활사

13) 아직도 조사 방법으로써의 구술과 참여관찰 방법의 일환으로써의 구술에 한정하여 구술의 의의와 가치, 방법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하위주체 연구(Subaltern Studies)의 방편으로 제시된 구술사 연구의 의의에 충실하여, 특히 현재 여러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엘리트 구술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관련 학계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구술은 기록을 남기는 여러 방법의 하나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개방적인 태도로 구술행위를 받아들인다면, 기록을 남기고, 생산하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질 될 것이다. 구술을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여, 전유하려는 태도는 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14)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협)아카이빙네트워크 수행

기록가(이하 기록가)라는 직함을 제공하고, 이들이 스스로 설정한 주제에 따라 구술자를 선정하고 구술 기록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였다.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이런 방식의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은 처음이었다.¹⁵⁾ 부산, 대전, 광주, 군포, 철원 5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한 기록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같은 지역 거주자를 구술 대상으로 선정하고, 질문지를 마련하고, 구술장소를 정하고, 구술면담을 진행하여, 영상과 음성, 녹취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생산했다. 여기에 면담자였던 기록가들이 구술자별로 구술 내용 요약을 포함하는 해설을 작성하여 책으로 펴냈다. 이렇게 출판된 『2021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사례집』(문화체육관광부,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21, 이하 '사례집'으로 표시)에는 713명의 구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술면담¹⁶⁾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애초 이 사업은 첫째 코로나 시대, 둘째 구술 기록이 생산된 각 지역 현안(부산, 대전, 광주, 군포, 철원), 셋째 일상을 큰 틀의 주제 범위로 제안했다. 구술 기록은 대체로 그 범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 주제 자체가 광범위한 것이어서, 개별 구술 기록은 다양한 사람과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선발한 기록가 대상 교육과정에서도 특정한 구술 목표와 주제를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술자를 선정해 구술 기록을 생산할 것을 권했었다. 결과적으로 적잖은 기록가들이 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들이 다루는 공적인 문제는 대체로 소외된 것들, 다수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지역문제를 주제로 설정한 경우, 이러한 특성은 강하게 드러났다.(사례집 1, 21-29)¹⁷⁾

15) 근래 구술사와 공공역사(public history)의 밀접성을 소개하거나,(윤택림, 2008), 공공역사의 유효한 방법으로 구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윤택림, 2020; 허영란, 2022; 박준규, 2022; 윤택림, 2023)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공공역사 프로젝트와 그 취지와 방향을 함께한다.

16) 구술 시간은 총 1,244시간이었다.

구술 기록이 생산되었던 2021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개인 일상과 사회 조건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면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통제되었다. 통제된 일상은 고통이 되었는데, 특히 무너진 일상이 생업을 뒤흔드는 경우 감염병 사태는 삶의 조건 자체를 흔드는 재난이 되는 일도 있었다.

부산에서 활동한 강희철 기록가는 “부산에서 오래 활동해 온 예술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역 예술인들의 삶의 기록을 담고자 한다.”(사례집 1, 32)라는 기획 아래 동화 작가, 클래식 음악연주자, 서예가, 시인, 작가를 대상으로 구술 기록을 생산했다.

클래식 음악 연주자인 정두환 씨와의 구술은 구술자의 생애사를 따라가면서 공연예술가들이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등의 노동으로 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 부산지역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 조건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현실과 이를 타개하려는 구술자의 노력, 코로나 감염병 사태 상황이 부산지역 예술가들에게 준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감염병 사태가 사회에 준 상처가 더욱 아팠던 것은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 때문이다. 예술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예술가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예술 분야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예술인들에게 감염병 사태가 준 타격은 상당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장우현, 이지연, 2021)¹⁸⁾ 강희철 기록가가 정두환 씨를 비롯한 부산지역

17) 부산에서 이루어진 구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핵발전소, 도시개발사업, 감천 문화마을 사람들, 광주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자리 문제, 대전에서는 대전의 교통 문제, 도시재생, 재개발, 청년정책, 1인 가구, 군포에서는 교통과 재개발 문제, 이주민 문제, 철원에서는 접경지대 군부대, 6.25전쟁 등을 다룬 구술이 중복되었다.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 피해가 컸다. 공연장과 전시관이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특히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코로나 감염병

예술가 대상 구술을 통해 드러낸 것은 정책 지원 없는 상태에서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는 서예가, 시인, 동화 작가의 삶과 활동이었다. 이들의 삶,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는 상황을 구술 기록에 담으면서 강 기록가는 지역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이 공공 자산이라는 문제의식이 이 구술 기획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두 코로나19의 경험 이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만나고, 부딪치며 관계하는 사회의 모습을 쉽게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규모는 작더라도 서로 만나고, 공유하는 삶은 여전히 지속해야 하며, '작은 예술'과 '작은 문화'를 공유하는 삶의 공간과 토대들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는 구술자의 메시지가 우리 문화예술 현장의 기초적 토대를 어떻게 다져나가야 할지 다시 뒤돌아보게 한다.(사례집 1, 34)

코로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연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진행한 기록가는 대전에도 있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국악인과 문인화가, 극단 대표, 전통 타악기 그룹 대표 등을 구술하여 기록을 남긴 박선민 기록가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구술을 진행했다.

구술자의 답변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형공연 위주였던 공연 문화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인상 깊었다. 안방 공연이

사태로 인해 경력 단절 예술인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예술인의 개인 소득이 대폭 감소했다. 예술인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예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피해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로 연간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활동 기회 감소,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라는 새로운 문화 형태를 제안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수 교육 등 변화해야만 예술을 지킬 수 있다는 구술자의 답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답변이었다. 전통 가곡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연주자의 삶을 통해 우리 문화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줬으면 한다. 힘겨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술을 지키기 위한 예술인들의 노력 또한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례집 2, 60)

예술정책의 목적은 자율성을 기초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환경이 시민들의 삶과 일상이 고양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문화예술정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강희철, 박선민 기록가의 구술 기록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해야 하고, 지역 문화와 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되어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간 우리는 지역에서 작은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소득 예술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 발주 보고서에서도 정작 가난한 예술가들은 통계 숫자 하나로 표현될 뿐이다.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에서 기록가들이 남긴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 자영업자, 독거노인 등의 생애와 일상은 제도 공론장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정책대상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상황과 요구를 드러내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변부의 삶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내는 구술 기록도 주의를 끈다.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1935년생 최도순 선생을 면담하고 기록을 남긴 이현아 기록가 사례는 구술자를 역사적인 사건의 참고인이나 목

격자가 아니라, 현장의 주인공으로 호명하고 있다. 이현아 기록가는 해설 「알지 못하는 한국사, 알아야 하는 한국사의 증인: 최도순」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 구술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반복해서 질문했다.¹⁹⁾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지역이었던 철원군 김화읍에서 소학교를 마친 최도순 선생은 지역 유력자였지만 딸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아버지에게 상당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일성대에 입학하겠다고 결심한 최 선생은 가출하여 북으로 향한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미군의 폭격을 만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당시 상황을 최도순 선생은 이렇게 구술했다.

구술자: 그날 B29가 철원, 김화, 평양을 폭격해가지고, “못 갑니다. 지금 철로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돌아가라고 해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면담자: 김일성대학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구술자: 김일성대학 가는 것은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살았으니깐. 어려서부터 김일성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최고 대접을 받으니까.

면담자: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때 철원역 가서 있었던 사건들, 월하리역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구술자: 김일성대학 가려고 했던?

면담자: 네, 가려고 했던 장면

구술자: …(전략)… 차표를 가지고 김화역으로 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깐 집에는 무슨 초상난 집처럼 전부 아버지와 엄마가

19) “면담자가 질문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25 한국전쟁 이전 구술자의 경험과 마음이 어땠는지, 둘째 구술자의 6.25 한국전쟁의 경험과 마음이 어땠는지, 셋째 한국전쟁 이후 마음의 변화 내용과 마을 분위기의 변화상, 넷째 코로나19 이후 구술자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었나.”(사례집 2, 462)

울면서 여차 딸자식 잃어버렸다고, 왜냐면 평양 폭격했다는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하고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가냐. 살아왔구나.” 하고선 반가워해서. 그때 처음으로 [구술자 감정이 북받쳐 목메는 소리로] ‘아버지도 사랑했구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후략)…²⁰⁾

말년의 삶을 살고 있는 1935년생 여성에게 면담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는다. 왜 김일성대에 가려고 했느냐는 물음에 구술자는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살았으니까.”라고 답했다. 뛰어난 인재인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길을 떠났던 구술자가 평양에 다다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회고하는 내용은 성공 욕구와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을 함께 보여준다. 이런 내용은 면담자가 계속 “왜?”라고 물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다. 면담자는 반공주의자였고, 자본가였던 아버지를 둔 10대 중반의 어린 여학생이 왜 김일성대에 입학하려고 했는지 궁금했다. 결국 면담자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과 성공 욕구가 가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인상 깊었다.”라고 표현했다.

구술자 최도순 선생과 면담자 이현아 기록가가 대화를 통해 남긴 역사 기록으로서의 구술 기록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닌 한 시민이 기획하고, 평범한 인물을 역사적 상황의 주인공으로 써 내려간 공동저작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동작업은 역사를 공론장으로 끌어오려는 공공역사의 사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김태현, 2019)

광주에서 구술 기록을 생산한 김연우 기록가와 인문학 공간 운영자 김시인 씨와의 구술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구술은 애초 1960

20) 녹취문 원문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편집하고 중요 부분만 대화로 옮겼다.

년대생인 구술자로부터 19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광주의 변화상을 듣는데 목표가 있었다. 구술자의 생애를 따라가던 면담은 구술자의 중학생 시절을 회고하는 부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와 만난다.

구술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 학교(무등중학교) 학생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때 나는 2학년이었고. 진압이 되고 다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형이 죽었다고. 그 형은 3학년 학생이었고. 시내에 나갔다가 총을...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인제 그 반, 그 형의 자리에는 꽃다발이 이렇게 놓여있고. 그랬죠. ...(중략)... 그다음 해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행사가 다 끝나고 5·18 묘소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개인 묘에 가가지고 거기서 추도,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비석을 잡고 애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가 반대쪽에, 뒤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묘가 하필이면 우리 학교 3학년 형이었어요.

면담자: 그 이름이?

구술자: 이름이. 그리고 무등중학교 3학년.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에 봉 자가 들어갔었는데...²¹⁾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날 오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면담자: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구술자: 어...이런 거죠. 그 형은 왜 시내에 나갔을까? 물론 한 학년 차이라고 하지만, 한 학년 차이가 얼마나 대단히 많이 알고, 또는 적게 알고. 이럴 수 있는 나이일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근데도 그 사람은 나갔고, 나는 집에 숨어있다. ...(중략)... 한 학년 차이지만, 한 살 많은 형은 나가서

21)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 김원봉 학생을 말한다.

그렇게 죽었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싫어요. 열다섯 살과 차이야 뭐. 열다섯 살과 열여섯 살이
라고 하는 이런 건...²²⁾

이 장면을 면담자는 해설 「N86세대가 말하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소피움 대표 김시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학생이었던 기억을 물었고, 구술자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하던 소년의 눈으로 본 단상과 마음속에 품은 생
각을 이야기했다. 구술자는 시내에 나갔다가 목숨을 달리한 학교
선배를 떠올렸는데, ‘고작 한 살 많은 형은 무엇을 더 알았기에 시
위에 나갔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내내 가슴에 남았다고 했다. 이는
학생운동을 한 이유 중 하나인 ‘희생된 이들에게 진 빚’이라는 이야
기와 맞는 지점이 있어 마음을 울렸다.(사례집 1, 293)

구술자는 1980년 사망한 중학교 1년 선배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동력
으로 6월항쟁에 나섰고, 젊은 여성 면담자는 그런 구술자의 고백을 통
해 N86세대를 이해하려고 한다. 구술 기록은 행동과 판단의 심적 배경
을 묻고 답하는 일이다. 구술자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호명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구
술자와 면담자는 차이와 같음을 확인하면서 소통한다. 주제가 역사가
될 경우, 이는 세대 간의 대화, 이념 간의 대화가 된다.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부산에서 평생 육체노동자로 살아 온 노인 5명의 생애사와
노년의 일상(사례집 1, 121-217), 부산시 북구 화명동 ‘대천마을’ 사람 8
명의 동네 살이(사례집 1, 136-145), 취업 준비 중인 광주 청년 7명이 직

22) 녹취문 원문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편집하고 중요 부분만 대화로 옮겼다.

면하고 있는 현실(사례집 1, 321-329), 대전에서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40~50대 여성 6명이 겪어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사례집 2, 23-29), 집단 이주로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정착하게 된 주민 6명의 이주사(사례집 2, 410-416) 등의 구술 기록은 작은 서사들이다. 이 구술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던지는 면담자들의 질문은 이들에게 제공된 흔치 않은 발언 기회였다.

공론장은 상호이해와 상호책임성이라는 공익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공공재원이 시민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은 평가할 만한 사례이다. 사업의 장기적인 성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 기록가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해설에는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서 일어난 소통이 담겨 있다. 이 소통은 공적 공간에서 발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 확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발췌한 사례를 통해 사업 성과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테지만, 구술 기록 생산을 매개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국가기관이 지원했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5. 맺는말

사회자본의 합리적 분배만으로 사회갈등 수위를 조절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소외감은 차별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유럽 이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 갈등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사회통합은 구성원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

이다. 참여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초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공론장은 사회구성원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를 지닌 구성원들이 상호 책임성을 느끼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점에서 공론장에서의 대화는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이 공론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이다. 갈등은 주장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 강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주장과 확신은 사회적 폭력이 된다. 고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는 자신의 관점과 주장을 누르고, 인지적 공감을 경험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구술 기록과 구술 기록 생산과정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공론장의 모습을 시사한다. 구술 기록에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로 포장된 공인된 역사, 표면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관점으로 발언하는 비공인 역사, 배면의 역사를 사회에 유통시킬 힘이 있다. 엘리트 대상 구술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구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배제되었던 사실이나, 관점, 감정을 남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엘리트의 낱알의 존재로 기록하는 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구술 기록에는 발언 기회가 부족한 사람에게 발언대를 제공하는 더욱 소중한 기능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술 기록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뜻 구술 기록은 구술자가 주관적인 생각을 방해 없이 남기는 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구술은 면담자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구술면담 현장에는 미래의 열람자라는 가상의 존재까지 끼어들어 구술자의 자기검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구술 기록이 유무형의 다중을 관객으로 둔 대화라는 점은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성과 공론장에 관한 기존 연

구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공성과 공론장의 조건을 그려 봤다. 이를 토대로 구술 기록이 지닌 특성이 시민 사회가 주체가 되어, 상호이해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기획과 면담, 기록 생산과 해설까지 담당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방대한 성과에 비해 일부분의 사례를 발췌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사업의 사례가 구술 기록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2021). 2021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사례집.
김시인(2021. 7. 27). 광주에서 김시인 선생의 구술. [김연우 생활사 기록가와의 면담].
최도순(2021. 7). 철원에서 최도순 선생의 구술. [이현아 생활사 기록가와의 면담].

〈2차 자료〉

- 김규현(2014). 대화분석 분야의 연구 동향: 언어, 사회적 행위, 지식 권리의 운영, 그리고 도덕성. 담화와 인지, 21-3. 담화인지언어학회, 311-320.
김선욱(2009). 공적 영역의 해부: 미국혁명,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한나 아렌트. 철학연구, 87. 고려대 철학연구소, 85-113.
김세훈·정기은(2020). 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7-1. 한국공공사회학회, 83-86.
김태현(2019). 퍼블릭 히스토리의 공론 주체에 관한 연구: 연구자, 당사자, 시민 대중을 중심으로. 기록과정보문화연구, 9.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163-206.
김희강(2010). 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4-2, 한국정치학회, 5-28.

- 박성우(2015). 행복(eudaimonia)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9-5. 한국정치학회. 111-131.
- 박준규(2022). 공공역사 구술자료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3-1. 한국구술사학회. 177-217.
- 박태선(2023). 한나 아렌트 정치이론에 비춰 본 기록보존소의 공공성 검토. 기록과 정보문화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2023, 51-86.
- 소병선(2017). 공공성에 관한 동서철학적 고찰.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학회. 265-279.
- 유승호(2015). 자본주의 불평등에 맞서는 공적 인간의 복원. 사회사상과문화, 18-1. 동양사회사상학회. 119-149.
- 유여란(2018). 인터뷰 대화에서 나타나는 관계 범주 조정에 기반을 둔 칭찬전략 연구. 담화와 인지, 25-2. 담화인지언어학회. 49-72.
- 윤택림(2019). 구술, 기억, 공공역사-Oral History and Public Memories, Paula Hamilton and Linda Shopes, eds., (Temple University Press, 2008). 구술사연구, 10-1. 한국구술사학회, 295-305.
- 윤택림(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1-1. 한국구술사학회. 9-45.
- 윤택림(2023). 구술자료 생산 및 활용 현황과 구술사의 공공성(Publicness). 구술사연구, 14-1. 한국구술사학회. 211-244.
- 이삼성(2015). 한나 아렌트의 인간학적 전체주의 개념과 냉전: 친화성과 긴장의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49-5. 한국정치학회. 113-145.
- 이승훈(2008).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47.
- 이원진(2019). 퇴계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62. 한국자치학회. 73-79.
- 이재점(2015). 행복의 공공성: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철학연구, 11-3. 대한철학학회. 263-282.
- 장우현, 이지연(2021).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한국콘텐츠학회. 301-313.
- 정원규(2020). 아렌트 공적 행복 개념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보충적 논제들. 사회와 철학, 40. 사회와철학연구회. 43-68.
- 조대엽(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한국사회, 13-1.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3-62.

- 조승래(2014).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강대 출판부.
- 주명진·박일호(2012).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과 미술관 공공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49. 한국기초조형학회. 417-42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문예연감 2021.
- 허영란(2022).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와 지역사. 역사비평, 139. 역사문제연구소. 228-251.
- 홍경자(2016) 사적 행복을 넘어 공적 행복으로: 정치적 자유와 행복. 철학논집, 45. 서강대 철학연구소. 35-60.
- 홍원표(2011). 아렌트,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다. 한길사.
- Arendt, H.(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Vol2. 이진우, 박미애 역(2017).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 Arendt, H.(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역(2019). 인간의 조건. 한길사.
- Habermas, J.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한승완 역(2004).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출판.
- Sennett, R.(1998). 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조용 역(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